강송철(sckang@truefriend.com) ☎ 02-3276-6181
서태종(seotaejong@truefriend.com) ☎ 02-3276-6184

주목해야 할 새 지수, KOSDAQ 150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49배
12MF PBR	0.90배
Yield Gap	7.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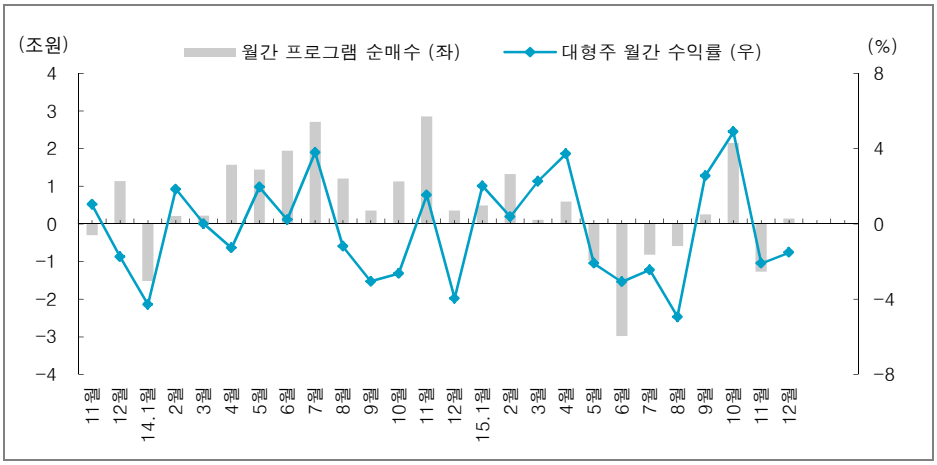
▶ 연초 1월 효과 기대 등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대한 관심 높음
▶ 새로 도입된 KOSDAQ 150 지수에 주목할 필요.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시장 대표지수
▶ 이전 코스닥 시장 지수들과 달리 KOSDAQ 150의 성공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 연초 중소형주에 몰리는 관심, 주목해야 할 새 지수 KOSDAQ 150

연초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관심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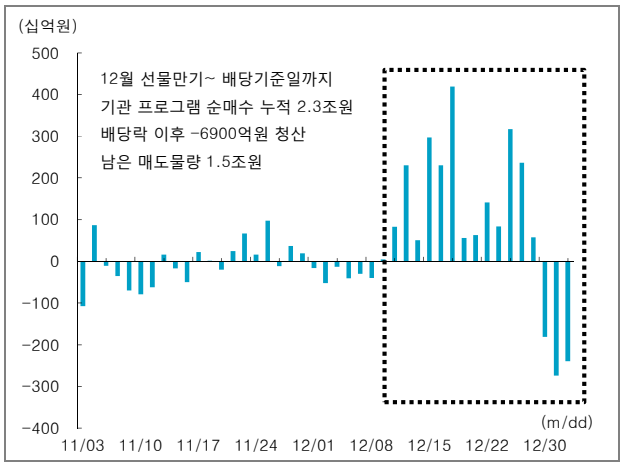
연초부터 코스닥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연초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1) 연초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소위 1월 효과, 2)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됐던 국내기관 프로그램 매수의 매도 청산에 따른 대형주(KOSPI200)의 상대적 약세, 그리고 3) 올해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이에 따른 주식 매도) 이슈가 일단 2015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된 데 따른 부담 해소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월간 프로그램 순매수와 대형주 수익률은 높은 상관관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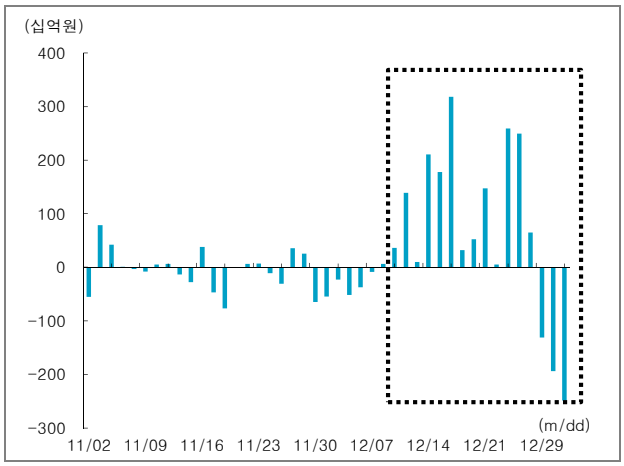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기관 일별 프로그램 순매수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증권(금융투자) 일별 프로그램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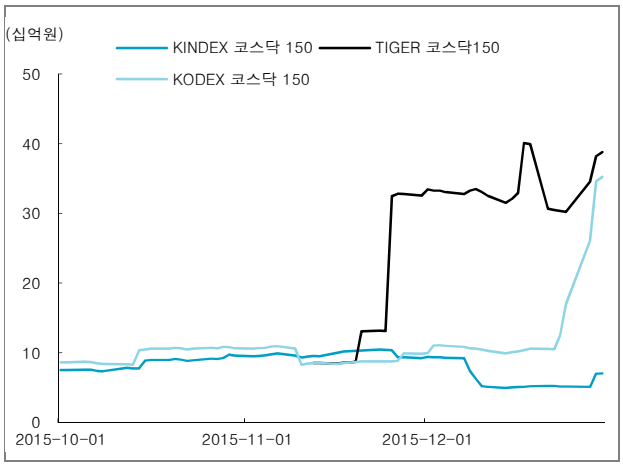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새로 도입된 코스닥 150 지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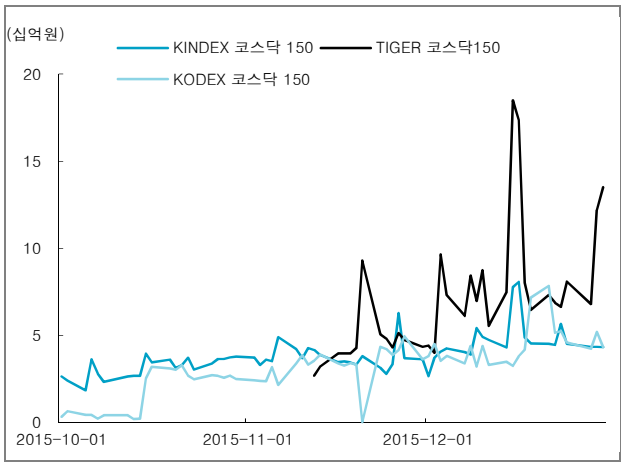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심을 가져야 할 지수(상품)가 있다. 거래소가 최근 새로 발표한 "코스닥 150" 지수다. 코스닥 150은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만든 코스닥 시장의 새로운 대표지수다. 지수는 2015년 7월부터 산출하기 시작했고, 10월과 11월에 해당 지수를 추적하는 ETF 상품 3종(KINDEX 코스닥 150, KODEX 코스닥 150, TIGER 코스닥 150)이 상장됐다. 역시 11월에 지수선물이 상장됐으며, 바로 뒤이어 3종의 레버리지 ETF 상품(KINDEX, KODEX, TIGER)이 상장됐다. 코스닥 150을 기초지수로 한 ETF와 지수선물은 모두 양호한 초반 거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코스닥 150 ETF 시가총액 추이



자료: Wisefn

[그림 5] 코스닥 150 ETF 일별 거래대금 추이



자료: Wisefn

■ KOSDAQ 150 특징 – "성장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IT/BT/CT등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일단 코스닥 150 지수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코스닥 150은 코스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거래대금)이 높은 대표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특이점은 "기술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 비(非)기술주 종목을 업종 대표종목 위주로 먼저 편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술주"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술주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업종 기업을 지칭한다.

코스닥 150 지수의 연말 기준 시가총액은 106조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202조원)의 53% 정도를 차지하며, 지수는 유동비율을 반영한 유동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된다.

<표 1> KOSDAQ 150 지수개요

대상종목	코스닥시장 상장 보통주(상장기간 6개월 이상)
구성종목 선정기준	시장대표성(시가총액), 유동성(거래대금)
섹터구분	상장종목을 기술주섹터(IT, BT, CT)와 非 기술주섹터 4개(소재,산업재,필수소비재,자유소비재) 등 5개 섹터로 분류 ※ 비중 1% 미만 섹터(에너지, 유틸리티)와 코스닥 특성이 낮은 금융 섹터는 제외
구성종목 선정방법	1) (非 기술주섹터) 섹터 별로 누적시총 60% 이내 종목을 선정 (단, 유동성 하위 20% 종목은 제외) 2) (기술주섹터) 非 기술주섹터 종목 수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수만큼 시총 순으로 선정 (단, 유동성 하위 20% 종목은 제외) 3) 다만 1), 2) 에서 선정된 종목 중 시총 300위 초과 종목은 제외하고, 대신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 섹터 구분 없이 시총이 가장 큰 종목으로 선정
지수 산출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기준시점	2010년 1월 4일, 기준지수 = 1000p
지수 정기변경	연 2회(매년 6월, 12월 선물만기) 구성종목 정기변경
특별변경	구성종목의 관리종목지정 등 발생 시 예비종목으로 교체

자료: KRX

KOSPI200과 확연히 구분되는 업종비중

코스닥 150이 기존 대표 시장지수들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업종 구성의 차이다. 통일된 구분을 위해 GICS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산업군(industry group, 중분류) 기준으로 코스닥 150 지수 시가총액에서는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 Life Sciences),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Software & Services), 미디어(Media), 건강관리 장비, 서비스(Health Care Equipment & Services)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OSPI200의 경우 IT 하드웨어, 자본재(조선, 건설, 기계) 및 자동차, 소재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코스닥 150 지수의 위 상위 4개 업종의 경우 코스닥 시장 대비로도 코스닥 150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더 높은 편이어서, 코스닥 시장과도 차별되는 면이 있다. 한편 코스닥 150에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금융, 통신 섹터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이점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위 "성장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2> GICS 산업군(industry group)별 시가총액 비중 – KOSDAQ 150

GICS 산업군 (중분류)	GICS 섹터 (대분류)	시가총액 합계 (조원)	비중
제약, 생명공학 & 생명과학	건강관리	29	26.9%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정보기술	19	18.3%
미디어	자유소비재	9	8.1%
반도체 & 반도체 장비	정보기술	8	7.4%
건강관리 장비 & 서비스	건강관리	7	6.4%
소재	소재	7	6.1%
기술 하드웨어 & 장비	정보기술	5	4.8%
소매	자유소비재	5	4.5%
자본재	산업재	5	4.4%
식품 & 기본 식료품 소매	필수소비재	4	3.9%
소비자 서비스	자유소비재	3	2.9%
가정용품 & 개인용품	필수소비재	3	2.4%
기타			4.0%
합계			100.0%

주: 비중은 단순시가총액 합계 기준. 실제 KOSDAQ150 지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계산. 2015년 12월 30일 기준
자료: KRX,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GICS 산업군(industry group)별 시가총액 비중 – KOSPI 200

GICS 산업군 (중분류)	GICS 섹터 (대분류)	시가총액 합계 (조원)	비중
기술 하드웨어 & 장비	정보기술	213	20.5%
자본재	산업재	124	11.9%
자동차 & 부품	자유소비재	101	9.7%
소재	소재	92	8.9%
가정용품 & 개인용품	필수소비재	56	5.5%
은행	금융	54	5.2%
식품, 음료 & 담배	필수소비재	53	5.1%
보험	금융	48	4.6%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정보기술	46	4.4%
유틸리티	유틸리티	35	3.4%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29	2.8%
내구 소비재 & 의류	자유소비재	29	2.8%
기타			15.0%
합계			100.0%

주: 비중은 단순시가총액 합계 기준. 실제 KOSPI200 지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계산. 2015년 12월 30일 기준
자료: KRX,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4> GICS 산업군(industry group)별 시가총액 비중 – KOSDAQ

GICS 산업군 (중분류)	GICS 섹터 (대분류)	시가총액 합계 (조원)	비중
제약, 생명공학 & 생명과학	건강관리	36	18.2%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정보기술	28	14.3%
기술 하드웨어 & 장비	정보기술	21	10.6%
반도체 & 반도체 장비	정보기술	20	10.0%
자본재	산업재	15	7.8%
소재	소재	14	7.1%
미디어	자유소비재	12	6.0%
건강관리 장비 & 서비스	건강관리	10	5.2%
내구 소비재 & 의류	자유소비재	7	3.5%
소매	자유소비재	6	2.9%
소비자 서비스	자유소비재	5	2.7%
자동차 & 부품	자유소비재	5	2.6%
기타			8.9%
합계			100.0%

주: 2015년 12월 30일 기준
자료: KRX,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KOSDAQ 150 지수, 성공 가능성 높다

코스닥 스타, 코스닥 프리미어 등 그 동안 지수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았던 코스닥 시장지수들과 달리 새로 도입된 코스닥 150 지수의 경우 중장기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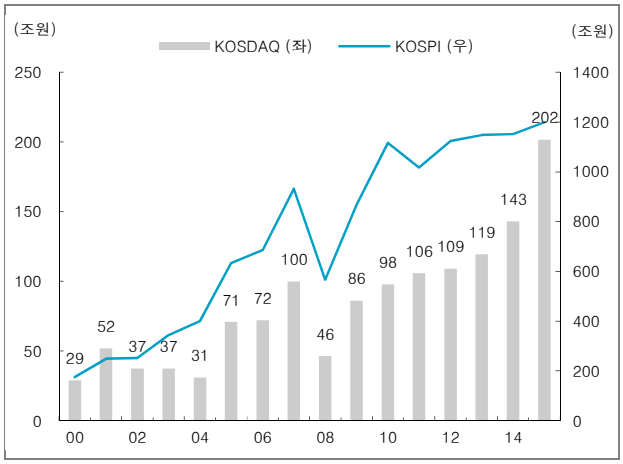
코스닥 시장의 달라진 위상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달라진 위상이다.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200조원을 돌파했고, 연간 거래대금은 874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두 과거 대비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2015년 연간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25.7%를 기록해 코스피 지수 수익률(+2.4%)을 20% 이상 상회했는데, 코스닥은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코스피를 상회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림 8). 한국경제의 성장 저하와 기업이익 정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몇 년째 부진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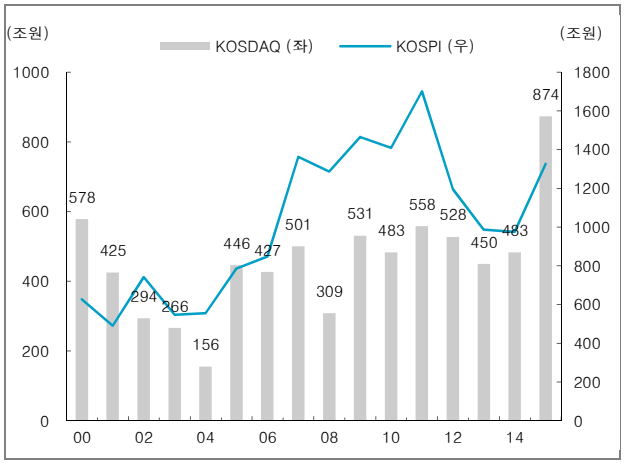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관, 외국인 등 전문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매매비중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비중은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내외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그림 9).

[그림 6] 코스닥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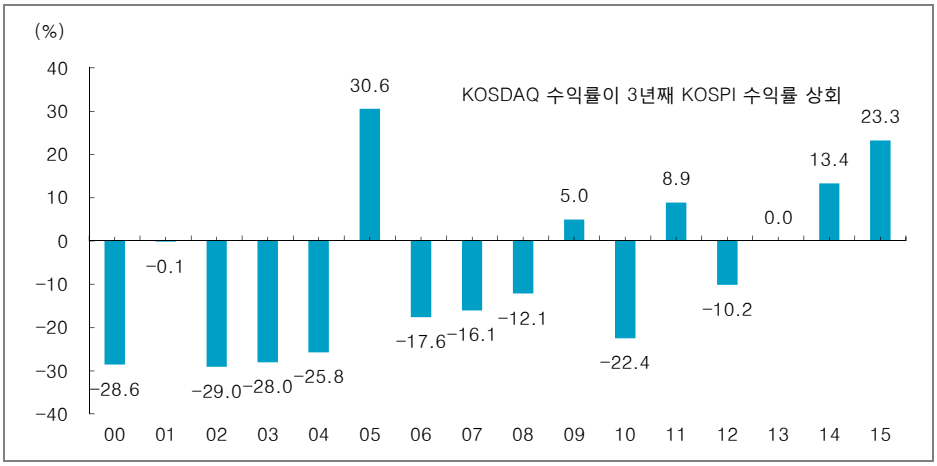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매년도 연말기준

[그림 7] 코스닥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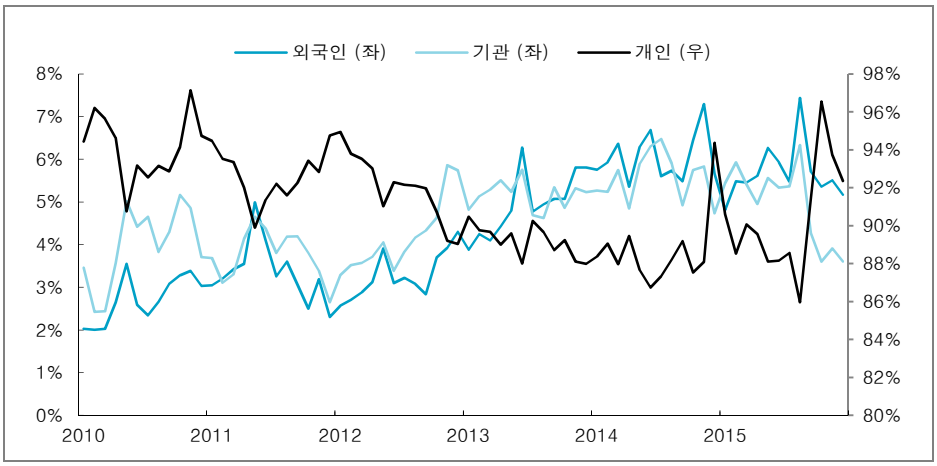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매년도 합계

[그림 8] 연도별 코스닥 – 코스피 수익률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코스닥 시장 투자주체 별 매매 비중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코스닥 시장에도 대표지수 통한 인덱스 투자 가능해짐

코스닥 150이라는 대표지수 개발로 인해 코스닥에 대해서도 ETF 등을 통한 인덱스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다. 그 동안은 코스닥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표 시장지수나 투자상품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ETF를 통한 인덱스 투자의 장점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인뎁스(in-depth)한 고민 없이 (개별 종목을 골라야 하는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쉽게, 적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수단으로서 코스닥 150과 관련 ETF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국내기관에 비해 한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KOSPI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의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5> KOSDAQ 150, KOSPI 200 연간 변동성(수익률 표준편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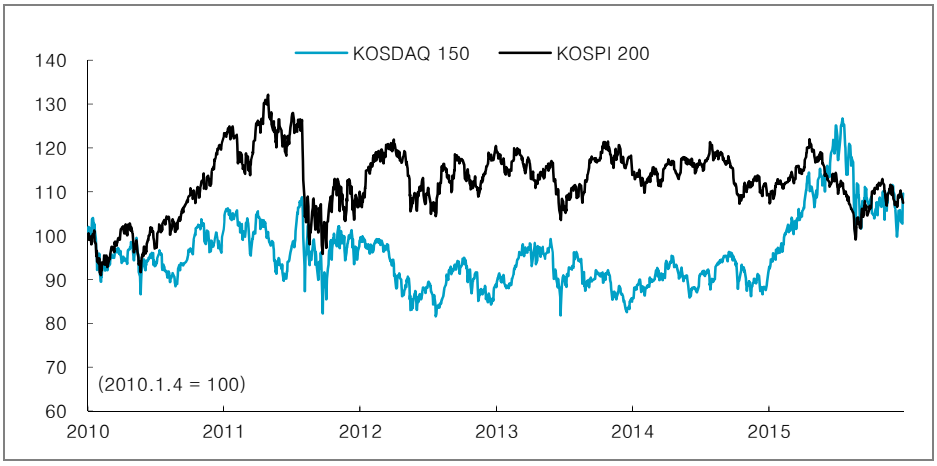
	KOSDAQ 150	KOSPI 200
2010	18%	16%
2011	30%	27%
2012	18%	17%
2013	18%	13%
2014	15%	11%
2015	24%	13%

주: 연도별로 일간 수익률 표준편차를 연율화한 값
자료: 한국투자증권

자산배분 측면에서도 분산투자 가능한 옵션이 생긴 셈

또한 업종구성 등의 측면에서 KOSPI나 KOSPI200과 상당히 다른 성격을 고려하면 자산배분의 측면에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생긴 셈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코스닥 150과 KOSPI200 지수간 상관계수는 0.0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 10). 물론 기존에도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와 자금배분이 있어왔지만 대표지수와 투자상품이 생김으로 인해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KOSDAQ 150과 KOSPI 200 간 상관계수 0.05로 낮음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6> KOSDAQ 150 구성종목 비중 (비중 상위 100 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지수 비중(%)	유동비율(%)	GICS Industry Group
A068270	셀트리온	11.28	7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35720	카카오	5.89	5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84990	바이로메드	3.62	9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86900	메디톡스	3.35	7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30960	CJ E&M	2.88	60	미디어
A041960	코미팜	1.78	5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78340	컴투스	1.76	7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26960	동서	1.67	35	식품 & 기본 식료품 소
A039030	이오테크닉스	1.53	6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200130	콜마비앤에이치	1.48	85	가정용품 & 개인용품
A048260	오스템임플란트	1.33	75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16170	로엔	1.31	40	미디어
A102940	코오롱생명과학	1.23	6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34230	파라다이스	1.23	50	소비자 서비스
A028150	GS 홈쇼핑	1.18	70	소매
A078160	메디포스트	1.10	95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41510	에스엠	1.10	80	미디어
A036490	OCI 머티리얼즈	1.04	55	소재
A084110	휴온스	1.04	6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35760	CJ 오쇼핑	1.00	55	소매
A048530	인트론바이오	1.00	8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30530	원익 IPS	0.98	70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28300	에이치엘비	0.97	85	내구 소비재 & 의류
A046890	서울반도체	0.91	6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82270	젬백스	0.91	90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56190	에스에프에이	0.89	65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41830	인바디	0.85	70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206640	바디텍메드	0.84	70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96530	씨젠	0.84	5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95700	제넥신	0.84	7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53800	안랩	0.81	6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192080	더블유게임즈	0.80	6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85660	차바이오텍	0.77	70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92040	아미코젠	0.74	8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0.72	70	미디어
A098460	고영	0.69	8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31390	녹십자셀	0.66	80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58470	리노공업	0.66	60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36420	제이콘텐트리	0.64	65	미디어
A067080	대화제약	0.63	6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08320	실리콘웍스	0.63	6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53030	바이넥스	0.62	8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52400	코나아이	0.62	75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51500	CJ 프레시웨이	0.61	40	식품 & 기본 식료품 소
A025980	에머슨퍼시픽	0.61	55	소비자 서비스
A091700	파트론	0.58	70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30520	한글과컴퓨터	0.58	7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36830	솔브레인	0.57	55	소재
A035080	인터파크홀딩스	0.56	55	소매
A063080	게임빌	0.54	7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16100	산성앨엔에스	0.54	65	가정용품 & 개인용품
A099190	아이센스	0.54	75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85370	루트로닉	0.51	70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005990	매일유업	0.50	55	식품, 음료 & 담배
A049960	쎌바이오텍	0.50	6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14570	지스마트글로벌	0.50	7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69110	코스온	0.50	85	자본재
A080160	모두투어	0.49	75	소비자 서비스
A100120	뷰웍스	0.48	70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112040	위메이드	0.48	50	소프트웨어 & 서비스

(계속)

종목코드	종목명	지수 비중(%)	유동비율(%)	GICS Industry Group
A114120	크루셜텍	0.48	70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83790	크리스탈	0.48	9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68240	다원시스	0.47	65	자본재
A006730	서부 T&D	0.46	40	소매
A015750	성우하이텍	0.46	55	자동차 & 부품
A214450	파마리서치프로덕트	0.46	4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200670	휴메딕스	0.46	5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69080	웹젠	0.45	3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168330	내츄럴엔도텍	0.44	7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86450	동국제약	0.44	5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03670	포스코켐텍	0.44	35	소재
A060250	한국사이버결제	0.44	6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38290	마크로젠	0.43	9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052260	바이오랜드	0.41	65	가정용품 & 개인용품
A043150	바텍	0.41	45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119610	인터로조	0.41	65	건강관리 장비 & 서비
A115160	휴맥스	0.41	65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13990	아가방컴퍼니	0.40	75	내구 소비재 & 의류
A067390	아스트	0.40	80	자본재
A023890	아트라스 BX	0.40	70	자동차 & 부품
A215000	골프존	0.38	4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35600	KG 이니시스	0.37	5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65620	제낙스	0.37	65	소재
A067000	조이시티	0.37	7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27050	코리아나	0.37	55	가정용품 & 개인용품
A060720	KH 바텍	0.36	70	기술 하드웨어 & 장비
A067160	아프리카 TV	0.36	8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22100	포스코 ICT	0.36	3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95660	네오위즈게임즈	0.35	65	소프트웨어 & 서비스
A194480	데브시스터즈	0.35	7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60590	씨티씨바이오	0.35	85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08790	인터파크	0.35	30	소매
A095340	ISC	0.34	60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104830	원익머트리얼즈	0.34	55	소재
A108230	톱텍	0.33	45	반도체 & 반도체 장비
A086980	쇼박스	0.32	45	미디어
A054950	제이브이엠	0.32	60	자본재
A067290	JW 중외신약	0.31	60	제약, 생명공학 & 생명
A123420	선데이토즈	0.31	50	소프트웨어 & 서비스
A054780	키이스트	0.31	75	미디어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2015년 12월 30일 기준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